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희주 (명지대 방목기초대학)

2008/5/15

이시대의 대표적 진화론자이며 무신론자인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작년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다.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과 무거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척박한 우리의 교양지식서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에 품절사태까지 빚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책은 2006년 처음 출간된 이후 해외에서도 『뉴욕타임스』, 아마존 등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150만부 이상이 팔려나가며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눈먼 시계공』, 『악마의 사도』 등을 통해 유신론에 대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었던 도킨스는 이 책의 출판으로 본격적인 무신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만들어진 신』의 출간에 즈음하여 도킨스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와 리처드 도킨스 재단을 설립했으며, 자신이 직접 출연한 『만악의 근원』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영국 BBC 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무신론 캠페인에 돌입한 것이다.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윈 200주년이 다가오는 21세기에서 미국인의 절반이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교육에 있어 사건이다.

문명이 위험에 처했다. 이성과 진리도 위험에 처했다. 특별히 미국의 학교들에서 과학이 그렇다. ... 우리는 조직화된 무지가 의도적으로 가하는 공격으로부터 과학을 보호해야 하며 ... 나아가 이성과 건전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 자신이 공격에 나서야만 한다.

그동안의 관심이 학문적이고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왔었다면 이제 도킨스는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바탕을 둔 무신론적 세계관을 공격적으로 사회에 적용시켜 21세기 문명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만들어진 신』은 도킨스의 첫 번째 저작이자 가장 성공한 책인 『이기적 유전자』와 비교해 큰 간격이 있다. 판매부수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적 충실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증거와 논리, 뛰어난 비유를 토대로 한 강한 지적설득력을 이루어 내었다면 『만들어진 신』에서는 수사, 격한 감정, 비아냥, 무례, 독선, 편파, 적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대중을 선동한다. 전작이 자신의 전문 분야의 안과 밖을 속속들이 섭렵하고 핵심 논의들을 학술적 문헌의 단단한 근거 위에 설득력있게 제시했다면, <만들어진 신>은 자신의 편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책의 상당부분을 인터넷 검색에서 건져 올린 편협한 자료들로 채우고 있다. 신을 부정하는 이유로 신 존재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을 들지만 정작 이 책을 채우고 있는 도킨스 자신의 수많은 주장들의 증거는 찾기가 힘들며 수사와 분노에 찬 비방만 메아리친다. 『도킨스의 망상』을 펴낸 옥스퍼드의

신학자 맥그라스는 이 책을 읽고는 “무신론의 입장에서 달변의 지옥불 설교”(맥그라스 2008, 20)를 뽐어내는 부흥사를 보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도킨스는 이 책의 목적을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1. “균형이 잡힌, 행복하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무신론”으로의 초대
2. “자연선택설과 같은 이론들이 지닌 힘” (기독교의 설계논증 타파. 종교를 과학으로 대체. 과학은 무신론적)
3.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종교화 반대
4. “무신론자의 자긍심” 고취 (도킨스 2007, 6-11)

도킨스는 “현재 미국에서 무신론자의 지위는 50년 전 동성애자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듯 무신론자들의 커밍아웃을 호소한다. “나는 무신론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도킨스 2007, 12) 한마디로 무신론의 전도와 무신론자들의 커밍아웃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무신론의 긍정은 책 전체에 걸쳐 유신론의 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으며 한 때 생물학도로서 『이기적 유전자』에 탄복했던 맥그라스도 이 책을 읽고는 “도킨스가 종교를 향해 보여주는 놀라운 적대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맥그라스 2008, 21). 『이기적 유전자』에서 정교하고 영감이 넘치며 난해한 과학개념의 소통능력에 있어 가히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도킨스에 매료되었던 맥그라스는 이 책을 읽고는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했다”고 술회한다. (맥그라스 2008, 20).

2005년 도킨스를 세계 3대 선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꼽았던 영국의 잡지 『전망』은 이 책에 충격을 받고 “교조주의자 도킨스”란 제목 하에 “무덤덤하고, 독단적이고, 산만하고, 자체 모순적인” 책으로 규정할 서평을 싣기도 했다.(Brown 2006).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비판은 쉽지 않다. 논의가 빈틈 없이 짝 짜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석을 요하는 체계적 논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책 내용 자체가 여러 주제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며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허술하고 아마추어적이다. 예를 들어 신학에 대한 도킨스의 공세적 논의에 대해 현재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및 문명 비평가로 평가받는 테리 이글턴은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생물학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영국의 조류도감』 뿐인 사람이 생물학에 대해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신학에 대한 리차드 도킨스의 논의를 읽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게 될 것이다.(Eagleton 2006)

도킨스 같은 골수 이성론자들이 “종교를 혐오할수록 종교에 대한 이들 자신의 비판은 형편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종교에는 “이해할 것 혹은 이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조금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이글턴은 지적한다.(Eagleton 2006)

80년대 초 아칸소에서 있었던 창조-진화 법정논쟁에서 진화론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성가를 드높였던 생물철학자 마이클 루즈도 자신을 여전히 도킨스의 “친구”로 밝히고 있지만 이 책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불신자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적이며 모든 신학적인 주장들에 대해 회의적인 나이
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주장들은 이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솔직히 ‘완전히 황당했다.’ (Ruse 2007)

이 책의 후반부에서 종교가 아닌 시대정신이 도덕의 원천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도킨스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의 아마추어적 한계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도덕적 시대정신이 넓게 조화를 이루어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내 아마추어 심리학과 사회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도킨스 2007, 410). 하지만 정작 이 책의 핵심을 이루는 종교현상과 신학에 대한 자신의 아마추어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신중함도 보이지 않는다. 논의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엄밀성, 공정성을 찾기도 힘들다. 도킨스에게 종교는 단순히 거짓이고 악일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무신론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성종교를 비판하는 프로 퍼갠더이지 엄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지식서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부사항보다는 이 책의 핵심 논증을 중심으로 큰 그림을 다루는 접근을 취할 것이다.

도킨스의 신 : 설계논증과 자연선택

도킨스는 “6장.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에서 이 책의 핵심 논증이 이 장에 들어 있다고 언급하며 여섯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간추리면 한마디로 “우주의 복잡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설계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인류 지성사에 있어 “가장 큰 과제들 중 하나”였으며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과학자인 윌리엄 패일리의 설계논증이 이에 대한 대표적 답변이라고 지적한다. 설계논증은 공학자가 시계 같은 인공물을 설계했듯이 초월적인 설계자가 눈, 날개, 거미, 사람 같은 복잡한 자연물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자 가설은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라는 더 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실패한 논증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다윈 진화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가설로 전락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도킨스는 지적한다. 설계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자연선택”이라고 도킨스는 주장한다. 나아가 자연선택은 “지금까지 제시된 해답 중 유일하게 유효”하며 “유효한 해답일 뿐 아니라, 대단히 우아하고 강력한 해답이다”라고 제시한다 (188).

도킨스는 18세기 패일리의 설계논증 뿐만 아니라 최근의 지적설계이론도 실패작이라고 비판한다. 도킨스는 “지적설계 이론의 바탕에 깔린 추론은 게으르고 패배주의적”이며 “고전적인 틈새의 신에 대한 추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한다(206). 예컨대 광합성의 기원이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이며 따라서 지적설계자가 존재해야한다는 추론에 대

해 “광합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라고요? 멋지네요! 굳이 연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신에게 호소하세요”라고 빈정거린다.(206) 신이 설명 불가능한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도킨스는 “그것은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설명의 부재, ... 영성과 의식으로 치장한 “난 몰라”다.“고 지적한다. (208)

이상과 같은 도킨스의 신의 존재 부정논리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1. “설계처럼 보이는” 생명현상에 대한 설명은 인류 지성사에서 어려운 과제였다.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이 기독교의 설계논증이었다.
3. 초월적인 설계자를 도입한 이러한 설명은 설계자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없다.
4. 설혹 설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신 가설은 이후 등장한 참된 답변인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5.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도킨스의 논증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먼저 신의 존재가 설계논증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전제이다. 다시 말해 도킨스는 “설계처럼 보이는 것”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인 패일리의 설계논증을 기독교 신학과 동일시하며 설계논증의 실패는 곧 기독교의 실패로 간주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도킨스의 주장은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맥그라스는 지적한다. 패일리의 설계논증은 “18세기 영국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창조론적 입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뿐”이며 18세기 당시에 여러 뛰어난 영국 신학자들이 “그 부적절함과 비정통적임을 이유로 이미 거부했던 견해”란 것이다. (맥그라스 2007, 106-107) 즉 18세기 영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논증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실패한 논증이고 이미 폐기된 논증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연선택’의 능력이다. 도킨스는 설계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설계자 대신 “단순한 것에서 있을 법하지 않는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증기”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기증기는 자연선택을 통한 다윈의 진화”라고 주장한다. 자연선택은 설계문제에 있어 “유일한” 답변이며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답변이란 것이다. 도킨스의 논증에 있어 자연선택은 초월적 설계자 혹은 생명의 창조자를 대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맥그라스의 표현을 빌면 자연선택은 “도킨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자연선택은 생명현상을 창조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가?

이에 대한 답변은 진화론자들 내에서도 엇갈린다. 도킨스는 진화론자 내에서도 하드코어 다윈주의자로 분류되며 도킨스의 진화론의 특징은 유전자 중심, 자연선택 중심주의로 압축할 수 있다. 유전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연선택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생명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생명현상을 창조할 만큼 강력하다고 본다. 반면 오랫동안 도킨스와 대립각을 세워 온 굴드의 경우 자연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며 환경의 영향, 우연적인 사건의 역할에 큰 무게를 싣는다.

선택의 수준 문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다. 도킨스는 집단선택이론을 극구 부정하며 진화는

유전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도킨스, 데니얼 데닛과 함께 하드코어 다윈 주의자 트로이카를 이루던 하버드의 에드워드 윌슨이 최근 공개적으로 집단선택이론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작년 12월 데이빗 윌슨과 함께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에 실은 “사회생물학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재고”는 앞으로 핵심 진화론자들의 역학관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이다. 20년도 넘게 데이빗 윌슨과 위스콘신 대학의 엘리엇 소버가 외롭게 고군분투해 온 싸움에 에드워드 윌슨이 공개적으로 합류했으니 그동안 주류 입장이었던 도킨스를 중심으로 한 집단선택 반대론자(혹은 유전자 중심주의자)와 집단선택 옹호론자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자연적 진화과정을 통해 생명현상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연선택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다른 진화 메커니즘과의 관계는 어떤지는 여전히 진화생물학자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다. 선택의 수준(유전자, 개인, 친족, 집단)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자연선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닌 그 구체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복잡한 개념으로 변했다. 즉 자연선택설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닌 복잡한 현상과 등가인 원리가 되면서 설명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현상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떤 변수를 핵심 변수로 선택해 시뮬레이션 모델에 포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난해한 과제가 된다. 이런 저런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다 보면 결국 복잡한 현상을 복잡한 현상으로 구현하고 설명하는 동어반복에 가깝게 되어 가는 것이다. 역학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물리법칙이 적용 가능하도록 실제 현상을 이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학적으로 이상화해 초기조건을 주게 되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된 결과가 실제 실험을 수행한 결과와 일치하면 이는 그 물리법칙이 참임을 보여준다.

진화과정의 경우 상황과 고려해야할 변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연선택을 적용할 대상을 이상화 수학화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화과정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자연선택이 법칙으로서 기능이 없지 않으며 설명력은 가지나, 역학의 경우와 같이 예측을 통해 그것이 참된 설명인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 점에서 물리법칙과 비교해 이론으로서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측면에서 생물학을 일종의 ‘우표수집’과 비슷한 수준의 활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물리학자들 간에 퍼져있기도 하다.

자연선택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실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예컨대 연속적인 비디오에 담듯이 서술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선택의 작동 레벨, 대상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이러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상호영향을 끼치는 핵심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서술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서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류의 진화과정에 대한 진흙탕 같은 논쟁이 보여주듯 다양한 진화 시나리오들 중에서 특정 시나리오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보편적 설득을 이루어내기가 힘들다. ‘그럴법한’ 설명이지 그 설명이 ‘참’임을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자연선택이 진화의 핵심원리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고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선택이 진화의 핵심원리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에 그치며 이를 선불리 확대하여 모든 생명체

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힘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결국 자연선택은 원리적 선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그럴법한’ 설명 외에는 어떤 실제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자연선택이 진화의 핵심원리라고 할지라도 과연 자연선택이 최초생명체에서 인간의 마음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생명현상을 창조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연선택은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다. 생존에 유리한 유전 가능한 변이가 어떤 개체에 발생하면 이는 그 개체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경향을 가진다. 그 결과 그러한 변이를 가진 개체수가 개체군 내에서 증가하고 개체군의 구성은 그 변이를 가진 개체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선택은 기계적인 메커니즘이지만 이를 넘어 자연선택에 창조성을 불어 넣는 것은 ‘자연선택’ 즉 ‘자연이 선택한다’는 은유이다.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이기적 유전자’ 개념도 마찬가지다.

최근 해밀턴의 이론과 “유전자 관점”을 대상으로 진화생물학에 만연한 은유적 표현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데보라 주르넷은 은유적 표현이 가진 ‘모호성’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한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Journet 2006, 381)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은유적 표현이 ‘자연선택’ ‘이기적 유전자’가 가진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창조성이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레토릭에 불과한 것인지이다. 자연선택이 실제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선택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창조력의 상당부분이 사실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주르넷의 분석대로 이러한 은유의 사용이 이론 수립에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은유사용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선택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는 이론가는 모호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창조성을 불어 넣는 것으로 보이며 나는 이를 “부풀림 효과”라 부르고 싶다.

자연은 어떤 “동기(motive)”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 자연선택은 진화론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생존경쟁의 결과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유가 실제 문맥에서는 ‘결과’를 넘어 ‘원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진화론 문헌에서 흔히 마주치는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거나 “꽃의 화려한 색깔이 벌을 유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표현들이다.(278) 도킨스는 이러한 표현을 “적절한 다윈주의 용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지루하고 장황한 반복을 피해 효율적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효율성을 넘어 ‘부풀림’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진화생물학자들에 의해 잠재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부풀림’을 통해 자연선택은 ‘도킨스의 신’으로까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적 설명’이 아닌 ‘창의적인 힘’으로 변환된 것이다.

도킨스와 종교

“5장. 종교의 뿌리”에서 도킨스는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도킨스는 종교를 본질적으로 자연선택의 산물이 아닌 “우연한 부산물 즉, 유용한 무언가가 빛나간 것”(p.287)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종교는 종교를 가진 개체의 유전자의 생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차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어 “6장. 도덕의 뿌리: 우리는 왜 선한가?” “8장. 내가 종교에 적대적인 이유”에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종교를 악으로 규정하며 부정한다. 종교에 대한 도킨스의 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깔려있다.

먼저 진화생물학자로서 종교라고 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이다. 도킨스는 폴 블룸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좇아 인간에게는 이원론적 본성과 목적론적 본성이 있다고 본다. 이원론자로서의 인간은 “틈만 나면 생명이 없는 물리적 대상을 의인화하며, 심지어 폭포나 구름에서도 영혼과 악마”를 본다. 목적론자로서의 인간은 “모든 것에 목적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고 예컨대 “구름은 ‘비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본다.(275-277) 이러한 특성들은 대니얼 데닛의 “지향적 입장”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윈주의적 생존가를 가진다고 도킨스는 설명한다. 즉 “우리 세계에 있는 실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데 자연선택이 그 일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내도록 우리 뇌를 다듬어”왔으며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 뇌의 기능이 바로 ‘지향성’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 동물, 상대방 같은 실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중 하나를 취하는데 첫째는 모든 만물은 물리적 법칙을 따른다는 “물리적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적용해 행동을 예측하면 대응이 너무 늦을 수 있는 데 예컨대 세탁기나 자명종 같은 설계물은 구태여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작동하는 물리적 과정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설계목적만 이해하면 그 행동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향적 입장”인데 예컨대 당신이 호랑이와 맞닥뜨린 경우 호랑이를 구성하는 물리적 분자나, 발톱 이빨의 설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곧장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의 의도 즉 지향성만 고려하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호랑이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277-279) 지향적 입장은 인간의 생존에 극히 중요한 시간을 절약해주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지향적 입장을 지름길로 삼도록 뇌를 형성”했다고 도킨스는 본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인간에게 “중요한 행동을 하는 실체에게 의도를 갖다 붙이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날씨, 파도와 해류, 떨어지는 바위에 의도”를 갖다 붙인다.(280-281)

문제는 종교를 이러한 지향성의 결과가 아닌 “빛나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종교는 빛나간 것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종교는 상대방과의 맹목적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메커니즘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고 본다.(283) 종교를 우연한 부산물로 보는 관점이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287) 도킨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종교를 “빛나간 것”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려는 것일까? 특히 종교를 인류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적응의 한 형태로 보는 진화론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데이빗 윌슨 같은 진화론자들은 종교가 적응의 한 형태이며 이를 집단수준에서의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이들은 종교의 내용은 허구일지 모르지만 그 기능은 현재도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도킨스가 종교를 적응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데이빗 윌슨 같은 이들이 도킨스가 극구 반대하는 집단선택론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에 대한 도킨스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인류의 생존에 유용한 적응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자로서 그 가치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한 때는 진화론적으로 유용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빛나간 부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제거해도 무방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도킨스에게 종교는 제거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대상이다. 종교는 그 내용이 허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악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타파의 대상이다. 종교에 대한 도킨스의 강한 혐오감은 이 책 전반에 걸쳐 특히 8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종교에 대한 도킨스의 입장과 관련한 첫 번째 이슈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따른 문제였다면, 두 번째 이슈는 종교가 설명의 대상에서 왜 도덕적 타파의 대상이 되어야할까라는 문제이다.

도킨스는 별다른 설명없이 5장의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에서 6,7장의 도덕의 기원, 기독교윤리에 대한 논의를 거쳐 8,9장 종교에 대한 단죄로 넘어간다.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사실설명(Is)에서 종교는 제거해야할 대상이라는 규범적 당위(Ought to)로 넘어가는 것이다. 도킨스는 여기서 흔히 범하기 쉬운 존재와 당위의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러한 혼란을 은연중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에 대한 기술로부터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책의 구성은 독자에게 그러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킨스는 신 개념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X는 참이다’와 ‘X가 참임을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540)고 지적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사실 언명 ‘종교는 허구다’와 가치판단 언명 ‘종교는 악하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일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도킨스의 혐오감은 자신의 학자로서의 성실성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윌슨은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에 관한 한 도킨스는 “아무런 독창적인 연구도 하지 않았고 동료들의 연구도 공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경험적 증거를 그렇게 강조하던 도킨스가 정작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회현상중 하나인 종교현상에 관한 한은 발로 뛰는 경험적인 연구는 도외시한 채 거친 사변만을 늘어 놓는다는 것이다. 자신도 무신론자이지만 『만들어진 신』에 드러난 도킨스는 “진화론자로서 과학의 대변인으로서의 명성을 이용해 종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성난 무신론자”에 불과하다는 윌슨의 비판은 도킨스로서는 뼈아프게 새겨야할 고언으로 들린다.(David Wilson 2007, 13)

참고문헌

리처드 도킨스,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알리스터 맥그라스, 조애나 맥그라스, 전상민 역, 『도킨스의 망상: 만들어진 신이 외면한 진리』 (살림, 2007)

알리스터 맥그라스, 김태완 역, 『도킨스의 신』 (SFC, 2007)

Brown. Andrew, "Dawkins the dogmatist," *Prospect*, Issue 127, October 2006

Eagleton, Terry, "Lunging, Flailing, Mispunching," *London Review of Books*, 19 October 2006

Journet, Debra, "Metaphor, Ambiguity, and Motive in Evolutionary Biology: W.D. Hamilton and the 'Gene's Point of View'," *Written Communication*, vol.22 no.4, 2005 October 379-420

Ruse, Michael, "Book Review: *God Delusion*," *Isis* vol.98 no.4 2007, 814-6

Wilson. David Sloan, Wilson. Edward O, "Rethink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Sociobiology,"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vol.82. no.4, December 2007

Wilson. David Sloan, "Beyond Demonic Memes: Why Richard Dawkins is Wrong about Religion," *eSkeptic* 2007/7/4